

국 외 소 식



미국여성, 음주 애완견때문에 100달러 벌금

미국 일리노이주의 맥헨리 카운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여성 운전자에게 특이한 벌금이 추가됐다. 시카고 언론은 5월 23일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된 다이앤 마르크트(50·여)가 애완견인 치와와에 계도 와인을 마시게 한 혐의로 100달러의 벌금을 더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 운전 단속시 치코라는 이름의 5개월 짜리 치와와 강아지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르크트는 레드 와인을 마시다 잔을 차고에 뒀었는데 치코가 이를 마셨으며 자신은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애완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치코는 이 사건 이후 다른 주인에게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 2006년 5월 24일

호주 개 40% 비만, 주인이 똥똥할수록 개도 더 똥똥

사람들이 잘못된 식생활 등 생활습관을 그들이 기르는 애완동물에게도 그대로 옮기면서 주인이 똥똥할수록 개도 더 똥똥한 결과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월 23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호주의 애완동물들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적게 운동하면서 개의 40%와 고양이의 33%가 비만에 해당돼 당뇨, 심장병, 관절염 발병률을 그만큼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 야구나의 호주 동물보호단체 RSPCA 본부에 근무하는 수석 수의사 마크 로리 박사는 애완동물, 특히 개의 경우 과도하게 먹이는 것이 호주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주인들은 개가 자기 체중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자기만큼 먹을 필요가 있다고 종종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리 박사는 어린 개에게는 맛난 먹이가 손쉬운 훈련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개가 필요로 하는 하루 에너지 중 얼마가 되는지 칼로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생 체중과 싸워야 하고 수명단축과 열악한 삶의 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키뉴스 / 2006년 5월 23일

“미, 수의사 부족 식품안전 위협”

조류 인플루엔자와 광우병, 구제역 등 동물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가축 수의사 부족으로 식품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캔자스주립대학 연구팀은 오는 2016년 수의사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식품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10년간 수의사에 대한 수요는 12~13% 늘어나겠지만 수의사 100명당 4명 꼴로 자리

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 2006년 6월 2일

유엔 시 위기관리센터 설치 계획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한 달 안에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한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미 농무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 론 드헤이븐 소장은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관리센터에 50여 명의 인력을 확보한 뒤 8개월 뒤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지역에 살처분과 방역 등의 지원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헤이븐 소장은 위기관리센터 설치가 야생동물들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과 인간 전염을 막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YTN / 2006년 5월 9일

“애완동물도 부양가족” 대기업, 경조사비 지급

일본의 한 애완동물 사료업체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직원들에게 출산축하금과 사망조의금을 지불하는 등 ‘부양가족’으로 대접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월 7일 전했다.

도쿄의 ‘일본힐즈 콜게이트’라는 이 업체는 사장의 지시로 ‘부양 애완견 경조규정’을 지난해 11월 신설했다.

이 규정에 따라 회사측은 사원이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기 시작하거나 새끼를 낳았을 때 현금 1만엔(약 8만 2500원)을 준다. 애완동물이 죽으면 조전을 치고 조의금 1만엔과 하루휴가를 주고 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애완동물의 이름을 밝힌 사진을 붙인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뿐이다.

서울신문 / 2006년 5월 8일

국내 소식



“수산용 항생제 남용 세균 내성 부채질”

200t 넘는 사용량 중 수의사 처방 10% 불과

최근 수년간 수산용 항생제의 사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관련 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동물약품협회의 자료를 국립수산물과학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사용된 동물용 항생제의 양은 모두 1천473t에 이른다.

이 가운데 축산용 항생제는 1천215t(전체의 82.5%)을 차지했으며 수산용 항생제는 258t(17.5%)을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용 항생제는 지난 2003년 165t에서 2004년 217t, 지난해 258t으로 해마다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반면에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된 수산용 항생제의 양은 매년 32t 내외에 불과했다.

나머지 수산용 항생제는 양식어민들이 자가치료나 질병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 항생제 오·남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수산물 관련 세균들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온 수과원 측은 비브리오 균 등 일부 세균에서 내성 징후를 발견,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수산용 항생제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수과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두 기관은 6월 13일부터 4일간 세계보건기구(WHO) 주관하에 세계식량기구(FAO)와 국제수의사무국(Oie) 후원으로 식약청에서 열리는 국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 자문을 구한 뒤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부산일보 / 2006년 6월 12일

수의사가 당뇨병 완치 길 열다

“당뇨병 완치에 다가설 수 있는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에서 수의학 박사과정 유학 중인 이정익씨(32)가 당뇨병 치료에서 최대 장애로 꼽히는 면역거부 반응을 없애는 획기적 기술을 개발, 일본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도교수인 사사키 노부오 교수를 비롯 지바히가시 국립병원연구팀 등과 공동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다른 사람의 췌장 세포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 최근 일본조직배양학회에서 발표했다.

이씨는 이 연구로 외국인 유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이 학회가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이씨의 연구결과는 니혼게이지신문에서 발행하는 닛케이비즈니스 데일리(24일자)에 상세히 보도됐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저하돼 생기는 질환인 당뇨병 치료방법으로는 최근 인슐린 주사 대신 다른 사람의 췌장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이때 생기는 면역거부반응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씨의 연구팀은 타인의 췌장 세포를 환자의 귀에서 추출한 연골세포로 둘러싸으로써 환자의 면역세포가 이를 자신의 세포로 여기도록 하는 방법을 썼다.

‘만두피로 만두소를 싸는 식’이라는 것. 그는 이 경우 “면역세포의 접근은 차단시키면서 산소와 영양소는 통과시켜 췌장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의사가 아닌 수의사’라는 점이 이 방법을 고안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소개했다. 사람의 경우 췌장 세포 이식시 면역억제제를 통해 거부반응을 줄일 수 있지만 동물에게는 값비싼 면역억제제

를 투여하기 힘들다는 것. 이런 사정 때문에 면역억제제 사용이 필요없는 치료법을 고민하던 그는 2003년 일본 셀시드사가 환자의 세포로 기증자의 각막 세포를 에워싸는 각막이식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셀시드사를 찾아가 연구계획을 밝히고 공동연구를 진행해 올초 개의 연골 세포를 이용해 쥐의 췌장 세포를 둘러싸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쥐와 개에게 세포를 이식해 당뇨병 치료 효과를 확인한 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는 “췌장뿐 아니라 다른 장기의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의 면역 거부반응을 억제하는 연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식 서울산업대 총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위인 이씨는 2001년 건국대 수의과를 졸업했으며 2003년부터 일본 도쿄대 농학생명과학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한국경제 / 2006년 5월 28일

'야호' 이제 그만, 야생동물에겐 '소음공해'

“산에서 ‘야호!’ 외치지 맙시다.”

대구 달서구청이 이색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산에서 ‘야호’라는 함성을 지르지 말자는 것.

등산객들이 스트레스를 풀다며 내지르는 소리에 야생동물들의 삶이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겁많은 야생동물들에겐 사람들의 느닷없는 고함소리가 심각한 ‘소음공해’가 될 수 있다는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삼고 있다.

구청에 따르면 사람들의 고함소리에 놀란 야생동물들이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하고 번식기엔 정상적인 번식활동마저 쉽지 않다는 것.

김창수 달서구청 환경보호과장은 “옛 사람들이 지팡이로 땅을 살짝 두드리며 산을 오르는 것도 야생동물들에게 ‘사람이 지나가니 놀라지 말라’는 작은 배려”라며 “‘야호’라고 함성을 터뜨리면 야생동물들의 생태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다른 등산객에게도 방해가 되니 등산객들은 경치만 조용히 즐기다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연구원 종복원센터 반달가슴곰 복원팀도 같은 주장이다.

사람들이 내는 소음으로 인해 반달가슴곰이 겨울잠을 자지 못한 채 헤매며 다니고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자꾸 옮기게 되는 등 피해가 크다는 것.

이 센터 김보현 부팀장은 “단체 산행객들이 질러대는 함성은 야생동물이 참기 힘들 정도”라며 “요즘은 새들이 번식활동을 할 시기니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호’는 처음엔 산악지대에서 고립됐을 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조난신호로 쓰여졌다.

매일신문 / 2006년 5월 23일

안동에 야생동물 전문병원 설립

안동에 야생동물 전문병원이 들어섰다.

경북도는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내 1,270평 부지에 ‘야생동물 지원센터(건평 255평)’를 건립, 5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2차 진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생동물 지원센터는 산업화·도시화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야생동물을 구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사고와 밀렵, 환경오염 등으로 다친 동물을 치료, 재활하는 역할을 맡는다.

치료실과 보육실, 수술실, 약제실, 재활훈련장 등에 초음파 진단기, X레이 시스템, 호흡마취기, 세균배양기 등 모두 19종류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 센터는 또 고급 약제로 쓰이는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 인공사육 기술 및 야생동물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희귀한 동물 박제를 전시한다.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최주대소장은 “이 센터가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전문 정보센터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 2006년 5월 18일

지리산 야생반달곰 ‘털’로 찾는다

야생 반달가슴곰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지리산국립공원 곳곳에 곰 털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중북원팀은 5월 4일 “지리산의 야생 반달가슴곰 서식 현황을 유전자 분석 방법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리산 일대 30여곳에 야생동물들한테서 디엔에이 분석용 모근을 채취하는 장치인 ‘헤어트랩’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어트랩은 철조망과 비슷한 형태로 곰이 주로 지나다니는 길목에 설치돼, 지나가는 곰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털만 뽑히도록 고안된 장치다.

중북원팀이 헤어트랩 설치에 나선 것은 발자국과 배설물 등의 흔적을 통한 야생곰 추적 작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발자국으로는 눈이 쌓인 겨울철 이외에는 종 구분도 쉽지 않고, 배설물은 금방 발견하지 못할 경우 곤충의 먹이 등으로 분해되어 쉽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한상훈 중북원팀장은 “지리산에는 방사된 곰 14마리 이외에 5~6마리의 야생 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야생 곰은 지난 2002년말 카메라에 잡힌 것을 마지막으로 실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헤어트랩 조사를 통해 야생 곰은 물론 표범, 여우, 사향노루 등 다른 멸종위기종의 실체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 2006년 5월 4일